대학평의원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6.12.27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11명

1. 회의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박종운, 김원수, 황철하, 김석주, 이현진
김홍수, 장수진

나. 불참의원 : 없음

4. 회의안건

제1안: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17학년도 본예산(안) 및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 자문

제2안: 2017학년도 제1차 학칙개정안 심의

제3안: 2017학년도 교육과정안 자문

5. 회의내용

(의 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주신 대학평의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은 제1안이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17학년도 본예산(안) 및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이고 제2안이 학칙개정안이고, 제3안은 2017학년도 교육과정안입니다. 규정상 제1안과 제3안은 자문이고 제2안은 심의입니다. 그러면 제1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윤호입니다. 먼저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경 및 2017학년도 본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자료 확정이 다소 늦었습니다. 자료를 며칠 전에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다)

먼저 교비회계 2016년 추경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투자자산을 건축적립금으로 대체하여 향후 마스터플랜 실행시 자금계획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고, 2016년 사업별 미사용 긴축자금을 명시이월 하였고, 차기이월금을 등록금 수입대비 2%를 넘지 않도록 명시이월 시키고자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016 본 예산 세입부분 등록금 수입은 당초 432억이었는데 휴복학생, 자퇴생 등의 변동으로 인해 실제 9억원 가량 수입이 감소하였고, 전입금 및 기부금은 166억 변동 없으며, 교육부대 및 교육외수입은 44억에서 43억으로부대시설 식당과 서점에서 매출감소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황철하	

전기이월금은 변동이 없고 투자 및 자산매각수입은 임차보증금 회수에 의해 5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보수는 209억으로 거의 변동이 적으며, 관리운영비는 13억 정도 줄었는데 각종 지원사업인 식당 등이 매출감소에 따른 원자재 구입이 감소되어 줄었으며, 연구학생경비에서 긴축운영으로 2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교육외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차기이월금의 예비비가 감소했으며, 투자 및 자산매입비용은 마스터플랜 설계비 등으로 캠퍼스조성 및 건설가계정 일부 지출금액이 일부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예산 대비 4억원정도 감소된 564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계정별로 사업의 편성비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전입 및 기부금에 대한 부분, 국고 및 기부금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투자부분에서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예금이자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등록금 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복학생 및 재학생을 변동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보수는 비슷한 수준이고 관리운영비는 원재료비 감소에 따라 지출이 좀 감소하였으며 연구학생경비 긴축운영으로 역시 감소하였고, 임의건축기금적립 등이 포함되었으며, 고정자산취득은 학과실습기자재 구입으로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세입이 확보 제한적이라 전체적으로 긴축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국고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등록금은 수입은 2015년도 결산대비 2016년도 추경 대비 2017년도 등록금 수입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편제정원은 줄었으나 휴복학생을 감안하여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기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대시설 대여료 등이 감소가 예상이 되어 2억원 정도 줄었으며, 투자 및 자산매각 수입은 올해 지출이 예상되는 유아교육센터 등의 건축비용 치의학센터의 설계비용 등으로 47억 정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보수부분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학생경비에서 세입의 기부금 감소가 예상되어 5억원 정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와 기타 자산에서 임차보증금의 지출감소가 예상되며, 고정자산매입에는 마스터플랜조성비 증가로 39억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실습비, 학생지원비를 긴축편성하면서 입시수당부분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검토바랍니다.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은 2016년도 563억 정도 2017년도 580억인데 여기에는 마스터플랜 4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는 건축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등록금 수입은 편제정원 감소에 의해 계속 줄고 있으며, 2018년도의 정원조정은 없으나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등록금 수입을 더 감소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의해 다시 정원감축이 예상되어 더 작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속에서 계속해서 긴축재정운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 장)예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여러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새롭게 의원으로 위촉된 이현진 학생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대표 의원인 총학생회장 인사하다.
(이명구의원) 2016년 연구학생경비에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연구학생경비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수의 연구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전문대학이지만 4년제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부분에서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황철하	

(기획예산팀장) 연구학생경비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학생연구 활동비용라고 할 수 있는 전공동아리 지원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의원) 앞서 팀장님의 설명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만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보면 보수가 2016년도에 비해 많은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며,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진행하다보니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대학의 예산 즉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는 표현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질의하다.
(기획예산팀장) 전체 등록금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62.8%는 적은 수치가 아니며, 이 부분을 줄이지 않고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회의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과 방문 설명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김택균의원) 수치를 다루다 보니 그런 것 같고 한정된 재정에서 마스터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표현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운영의 미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운의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건축기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면서도 감가상각비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장)올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기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이상으로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17학년도 본예산(안) 및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균의원)부의안건 논의 시 대학측의 고민과 앞으로의 여러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베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장수진의원) 동의하다. (김원수의원) 재청하다.
(의 장)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며,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묻다. 이에 의원들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다.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인 학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구하다.
(교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무지원팀장 김경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학칙개정 심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사회복지학과(야) 20명의 신설과 치위생학과 (25->20), 응급구조학과(30->25)으로 입학정원 조정안을 학칙에 반영하고, 사회복지학과 학위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김홍수의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결국에는 학사학위인데 학과를 명시한 학위명칭보다는 4년제 대학과 같이 보건학사나 이학사와 같은 표현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이 부분은 대학자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 학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균의원)김의원님의 말씀대로 타 대학의 상황과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보건학사로 하고(전공 :치위생학과)로 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기 회의 때는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오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장수진의원) 동의하다. (양용원의원) 재청하다.
(의 장)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며,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묻다. 이에 의원들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다. 학칙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인 2017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구하다.
(교무지원팀장) 2017학년도 교육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이념 학과교육목표 인재상 등을 고려하고, 산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 NCS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황천하	

기본 방향,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 등이 2016학년도 교육과정과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며, 2017학년도 변동사항은 학과별로 NCS 및 현장중심교육과정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더 교과목을 추가하였으며, 공통교양교육과정에서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수강인원과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통해 신설 및 폐강 변경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장실습교과목의 보완, 우리대학의 특성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교과의 신설 및 이를 배치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경 등을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학과별 교육과정을 작성했습니다.
(장수진의원) 전체적으로 대학 사정을 이해 하지만, 실제 공통교양을 운영하면서 학과는 시간표 짜기와 보강잡기가 힘들다.
(교무지원팀장) 이 부분들은 대학 전체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 장) 교과목 명칭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무지원팀장) 이 부분도 학과의 의견을 들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균의원) 학과의 특성 및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기년도 적용할 개선안은 추 후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명구의원) 동의하다. (양용원의원) 재청하다.
(의 장)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며,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묻다. 이에 의원들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다. 의장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부의안대로 확정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 의원, 김원수 의원, 황철하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2:16분 산회)

2017년 1월 18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 이 명 환

부의장 : 장 수 진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이 명 구

평의원 : 박 종 운

평의원 : 김 원 수

평의원 : 김 흥 수

평의원 : 황 철 하

평의원 : 김 석 주

평의원 : 이 현 진